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미치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의 효과

강종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on the Intention to have a Social welfare Job

Jong-Soo K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이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 4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442명의 설문조사를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전공만족은 일반 만족과 교과 만족으로, 전공몰입은 정서적 몰입, 행동적 몰입, 지적 몰입 및 시간적 몰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직 취업의도는 예/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응답자의 62.3%가 졸업 후 사회복지직으로 취업하고자 하였으며, 21.6%는 미결정, 16.1%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은 2.98, 전공몰입은 2.63으로 4점 리커트척도에서 중간값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와 소속 대학에 따라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에 차이가 있으며, 넷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의 두 하위요인 모두, 그리고 전공몰입의 정서적 몰입과 시간적 몰입이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on the intention to have a social welfare job. For this study, a survey of 442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t 4 universities located in Kangwon-do was conducted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Major satisfaction consisted of gener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subjects, and major commitment consisted of emotional commitment, behavioral commitment, intellectual commitment and time commitment.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62.3% of respondents had an intention to have a social welfare job, and 21.6% were undecided. Second, the level of major satisfaction(2.98) and major commitment(2.63) were slightly higher than the mid-point of the 4-point Likert scale. Third,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intention to have a welfare job and university attended. Fourth,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have a social welfare job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This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strategies based on our results.

Keywords :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intention to have a social welfare job

*Corresponding Author : Jong-Soo Ka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82-10-5550-6126 email: jskang@kangwon.ac.kr

Received August 29, 2017

Revised (1st September 25, 2017, 2nd October 10,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1. 서론

교육과정을 마치고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 결정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대학생은 Ginzberg[1]의 진로발달단계 중 3단계인 현실적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생들은 의학계열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진로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진로문제가 주된 스트레스임을 보여주고 있다[2][3][4]. 사회복지학 전공생들 역시 다른 전공과 큰 차이 없이 졸업을 앞두고 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또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실제적 준비행동을 못하거나 진로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이 전공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졸업 시점에 막연한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로동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복지학 전공에 흥미를 잃어 결국 사회복지사가 되는 진로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7], 심지어 대학을 휴학하거나 중퇴할 수도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월 현재 총 913,064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었고, 이 중에서 1급이 138,220명, 2급이 761,514명에 이른다[8]. 연도별 자격증 발급현황을 보면 2014년 75,606명, 2015년 75,848명, 2016년 75,198명에 이르지만, 201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9]에 의하면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70,894개로 476,949명이 종사하고 있고 매년 40,934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7만 5천 명 정도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절반 정도만 사회복지기관에 취업되는 실정으므로 사회복지노동시장의 공급 초과로 인한 수급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고 이러한 현실은 재학생들의 진로결정과 나아가 학업몰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한 개인이 어떤 자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론적 및 실제적인 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이러한 전공은 사회로 입문하기 위한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이며 그 선택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10].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이나 몰입은 대학생들의 주요영역인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전공만족이나 사회복지

학습경험, 가치, 실습 경험, 자원봉사활동 등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4][6][11][12][13], 이러한 결과는 전공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복지직을 선택하고 준비하도록 자극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을 살펴본 것으로, 구체적으로 졸업 후 사회복지직으로 취업할 것인지 여부를 예혹은 아니므로 묻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진로결정에 특히 전공 수업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된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즉 재학 중에 이미 사회복지직으로 취업하리라 결심한 상태라면 전공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이나 실습에 임하는 자세가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수업에 만족하고 몰입하는 것은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양성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그렇다면 전공수업에 만족하고 몰입하는 것이 사회복지직으로의 취업을 결심하데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공에 몰입하는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으로 진출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학 전공생은 대상으로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이 졸업 후 사회복지직으로의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력개발 내지 사회복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은 어느 정도이며,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인구사회적 특성 및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따라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은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대학생활은 학업활동 세계에서 직업세계로 준비하거나 진입하는 시기로서 인생 주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취업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하여 취업기관의 다양한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시절동안 외국어, 봉사경험, 자격증, 다양한 실제 경험 등을 취득해 놓아야 하며[14], 무엇보다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위한 전공학습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개인의 장래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서 전공불만족은 미래의 진로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15].

일반적으로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대나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생이 평가하기에 사회복지학이 자신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을 것이다[16][17]. 이러한 전공만족도는 전공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주고, 전공학습 흥미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클수록 진로결정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12][13][18][19]. 특히 사회복지실천 학습경험이 학생들의 사회복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Hackett & Betz[20]의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을 토대로 연구[12]한 결과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이 사회복지를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전공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실천 효능감을 끌어올리며,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공몰입은 전공분야에 대해 심리적으로 폭 빠져 있는 애착의 상태로[21], 자신의 전공에 몰입한다는 것은 전공분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고려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비록 지금까지는 전공몰입 보다 전공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전공몰입 역시 진로결정이나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7][21]. 전공몰입이 높을수록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취업률이 높을 이유로는

첫째, 전공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의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둘째,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교적 일찍 준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가능성은 전공과 비전공 과목의 학점관리와도 관련될 것이다[22][23][24]. 이와 같은 이유로 졸업 취업률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일 것이며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5].

원래 몰입은 조직심리학의 Allen & Meyer[26] 등의 조직몰입에서 시작된 것으로, Morrow[27]는 몰입의 초점에 따라 다양한 몰입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Mowday, Porter & Steers[28]는 조직몰입을 통해 개인은 조직으로부터의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조직입장에서는 결근, 이직, 또는 성과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유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전공몰입에 확장하면 전공몰입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들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학 전공생들 역시 전공만족도가 높고 전공몰입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직 취업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함으로써 사회복지직 취업의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4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배포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별로 전임교수가 수업 시작 전에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학별로 120부씩 배포하여 453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4.3%). 다만 무응답치가 많거나 일관된 응답을 보인 불성실 31부를 제외한 42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만족은 Illinois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하혜숙[16]이 수정보완한 척도 중에서 전공학과에 대한 일반 만족 3문항과 교과만족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중간값 없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평균의 합으로 복합지표화(composite index)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공몰입은 Jackson &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척도(Flow State Scale)를 김혜주[25]가 수정한 34문항 중에서 각 요인별로 요인적재량이 높은 순으로 추출한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칙도인 FSS는 주로 실습수업에서의 몰입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사회복지학 전공수업은 상당부분 이론수업으로 진행되는 점과 몰입의 결과가 결국 행동적·인지적·정서적 요인으로 분류된다는 Mundell[26]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몰입, 행동적 몰입, 지적 몰입 및 시간적 몰입의 네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중간값 없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복합지표화 하여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직 취업의도는 “귀하는 졸업 후에 사회복지직으로 취업하실 계획인가요?”라는 단일문항으로 문고예(1)/아니오(2)/미정(3)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미정은 향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 예 또는 아니오로 변경되었지만 본 연구의 초점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직으로의 취업의도를 갖고 있느냐 여부, 즉 사회복지직으로의 취업의지가 확고한지가 중요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아니오와 미정을 0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각 응답치 간에 표본크기의 차이 때문에 다항 로지스틱을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도 고려하였다.

이외에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로는 성별, 학년, 연령, 소속 대학, 이수 교과목 수 등을 측정하였다. 다만 연령과 학년은 상관성이 매우 높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학년만 사용하였고, 소속 대학은 익명성을 위해 A~D로 무순 명목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우선 전공몰입은 전체가 Cronbach's $\alpha=.92$ 이며,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몰입은 $\alpha=.79$, 행동적 몰입은 $\alpha=.83$, 지적 몰입은 $\alpha=.83$, 시간적 몰입은 $\alpha=.72$ 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은 전체가 Cronbach's

$\alpha=.86$ 이며, 일반만족은 $\alpha=.71$, 교과만족은 $\alpha=.75$ 로 나타났다.

Table 1. Questionnaire's reliability

Variable	Items	Cronbach's α
Major commitment	23	.92
-Emotional commitment	6	.79
-Behavior commitment	7	.83
-Intellectual commitment	6	.83
-Time commitment	4	.72
Major satisfaction	7	.86
-General satisfaction	3	.71
-Subject satisfaction	4	.75

3.3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 SPSS 22.0을 이용하여 자료의 분포적 특성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의 차이는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고, 다만 사후검정은 표본 수가 다름에 따라 Scheffe를 사용하였다.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이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사회적 특성모형, 전공만족모형, 전공몰입모형으로 나누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이들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몰입은 4점 리커트척도의 중간값보다 높은 2.6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몰입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적 몰입이 2.70, 행동적 몰입이 2.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몰입은 평균 이하인 2.23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2.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다만 교과만족이 3.07로 일반만족 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왜도와 첨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왜도는 절댓값 3미만,

침도는 10미만에 해당하여 안정된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jor variable

Variable	M(SD)	Min.	Max.	Skew.	Kurt.
Major commitment	2.63(.43)	1.00	4.00	-.46	1.19
-Emotional commitment	2.84(.45)	1.00	4.00	-.64	1.19
-Behavior commitment	2.61(.49)	1.00	4.00	-.29	.84
-Intellectual commitment	2.70(.50)	1.00	4.00	-.24	.40
-Time commitment	2.23(.54)	1.00	4.00	.06	.07
Major satisfaction	2.98(.43)	1.00	4.00	-.63	1.73
-General satisfaction	2.92(.59)	1.00	4.00	-.63	.50
-Subject satisfaction	3.07(.42)	1.00	4.00	-.73	2.82

4.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및 전공몰입의 차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및 전공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전공만족의 경우 성별을 제외한 학년, 이수 교과목 수, 소속 대학, 사회복지직 선택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년이고 이수한 교과목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선택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속 대학에 따라서도 C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몰입도는 소속 대학과 사회복지직 선택의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성별이나 학년, 이수한

교과목 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낮은 C대학에서 역시 전공몰입도가 낮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직 취업의도를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거나 미정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관한 빈도분석에서 62.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미결정이 21.6%, 그렇지 않다가 16.1%로 과반수 이상이 재학 중에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이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이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적 특성변인과 전공만족 및 전공몰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모형별로 분석하는 이연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모형설명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성별은 남성, 대학은 A대학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모형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학년, 이수 교과목 수, 소속 대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설명력은 .11, 예측정확도는 81.4%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이 높고 이수한 과목이 늘어날수록 사회복지직 취업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Description of study population and the comparison of mean

Variables	N	%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M(SD)	t/F	M(SD)	t/F	
Gender	Male	205	48.6	2.98(.49)	.11	2.64(.49)	.57
	Female	217	51.4	2.97(.37)		2.62(.36)	
Grade	1 ^a	92	21.8	2.49(.84)	5.54** (a,b,c<d)	2.61(.29)	.47
	2 ^b	122	28.9	2.26(.71)		2.60(.48)	
	3 ^c	100	23.7	2.21(.92)		2.63(.51)	
	4 ^d	108	25.6	2.69(1.09)		2.67(.40)	
	≥5 ^a	140	33.2	2.81(.41)		2.61(.34)	
Passed Subjects	6~15 ^b	202	47.9	3.02(.45)	3.71* (a<b,c)	2.61(.50)	1.46
	16≤ ^c	80	19.0	3.01(.42)		2.71(.36)	
University	A ^a	112	26.5	2.46(.73)	5.86** (c<a,b,d)	2.74(.69)	5.20** (a,c<b,d)
	B ^b	97	23.0	2.40(.72)		2.97(.57)	
	C ^c	110	26.1	2.10(.87)		2.68(.82)	
	D ^d	103	24.4	2.67(.1.21)		2.92(.73)	
intend to have a welfare job	Yes ^a	263	62.3	3.11(.34)	63.04*** (b<c<a)	2.75(.34)	50.73*** (b<c<a)
	No ^b	68	16.1	2.53(.48)		2.23(.50)	
	Undecided ^c	91	21.6	2.94(.43)		2.63(.43)	

*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Variables	Demographic Model				Satisfaction Model				Commitment Model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Gender(Female)	.12	.36	3.28	3.07	.53	.12	4.15	.04	.97	.96	6.06	.01
Grade	.65*	.31	4.10	1.91	.80*	.38	4.50	2.22	.66*	.35	3.39	1.93
University(B)	-.75*	.31	3.01	.47	-.66	.35	3.50	.51	-.66	.33	3.97	.51
University(C)	-.63	.34	3.48	.53	-.42	.39	1.17	.65	-.58	.36	2.50	.56
University(D)	-.92**	.31	8.82	.39	-1.07**	.36	8.74	.34	-.97**	.33	8.45	.38
Passed subjects	.13**	.06	4.31	1.88	.15*	.07	4.07	1.86	.14*	.07	3.72	1.87
General satisfaction					4.92***	.97	25.71	1.01				
Subject satisfaction					1.10**	.36	9.12	1.33				
Emotional commitment									5.13***	.83	38.01	1.01
Behavior commitment									.34	.49	.48	1.41
Intellectual commitment									.36	.34	1.14	1.44
Time commitment									.59*	.27	4.63	1.80
Nagelkerke R ²		.11				.42				.30		
Predicted correct			81.4%				86.3%				89.4%	

*p<.05, **p<.01, ***p<.001

다음으로 인구사회적 특성변수에 전공만족도를 투입한 전공만족모형의 경우 인구사회적 특성변수들은 변함이 없고 일반만족과 교과만족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모형설명력이 .42, 예측정확도가 86.3%로 높아졌다.

인구사회적 특성변수와 전공몰입의 네 하위요인을 투입한 전공몰입모형의 경우 전공몰입의 정서적 몰입과 시간적 몰입이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설명력이 .30, 예측정확도는 89.4% 수준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전공몰입의 정서적 몰입과 시간적 몰입이 높아질수록 졸업 후에 사회복지직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전공만족도와 전공몰입도가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를 빈도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2.3%가 사회복지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반면에 미결정이 21.6%, 그렇지 않다가 16.1%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제학 중에 사회복지직 취업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의 전공만족과 전공몰입 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만족은 3.0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일반만족을 그렇지 못한 정도이고, 전공몰입 역시 전공수업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지적 몰입이나 정서적 애착관계인 정서적 몰입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업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느껴질 정도의 시간적 몰입은 평균 이하인 2.23으로 나타나 강의시간에 폭 빠져있는 몰입도는 낮은 수준이다.

셋째, 전공만족 및 전공몰입에 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학년이고 이수한 교과목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직 취업의도가 있는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 대학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전공몰입은 소속 대학과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직으로 취업의도를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거나 미정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이 졸업 후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적 특성변수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수한 교과목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의 일반만족과 교과만족 두 요인 모두, 그리고 전공몰입의 정서적 몰입과 시간적 몰입이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선 사회복지학 전공생 역시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이 높을수록 졸업 후 사회복지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음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이 졸업 후 사회복지직으로 취업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선행연구 [10][22] 알 수 있듯이 재학생들이 이미 졸업 후에 사회복지직으로 취업하리라 결심하게 되면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일찍 준비하게 되어 더욱 더 열심히 전공교과목을 공부하게 되어 보다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양성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공급초과상태인 사회복지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본인에게도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조기에 진로결정을 하도록 지원한다면 전공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열의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높은 학점과 취업 준비를 통해 좋은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전공몰입도에서 지적 몰입이나 정서적 몰입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업시간에 발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의 몰입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으로써 전공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과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이 요청된다. 상당수의 강좌가 실습이 아닌 이론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강좌당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제한하고 실습수업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2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공교육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수록 사회복지직으로의 취업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교 사이에 전공만족도와 전공몰입도 그리고 사회복지직 취업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마다 교육여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 전반의 운영방식 등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차이는 합리화될 수 없는 것으로 대학마다 강점을 살린 특성화된 교육은 필요하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매뉴얼화된 교육과정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

계를 갖는다. 우선 자료수집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정량적 조사이며, 자료 수집이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고 횡단적 연구이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에 한정하여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효과 내지 진로결정요인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uper, D. E.,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y*, vol. 8, no. 5, pp. 185-190, 1953. DOI: <https://doi.org/10.1037/h0056046>
- [2] K. W. Kim & J. H. Rhyu,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dentity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n Affect of Career Decision Statu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1, pp. 73-92, 2009.
- [3] H. S. Son, A Study on the Relations of Self-Efficacy and Types of Career Decision-Mak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 pp. 61-79, 2004.
- [4] S. Y. Kim & S. Huh, Research on Employment Stress and Countermeasures of the Graduates-to-be Who Majored In Social 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9. pp. 23-51, 2009.
- [5] J. H. Jeong, M. S. Won & S. J. Le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7, pp. 226-237,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7.228>
- [6] J. S. Kang, Effect of Volunteering on Career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6, pp. 236-246,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6.236>
- [7] B. D. Ahn & W. W. Shin, The Influence of Level of Satisfaction with Major, Level of Field Practicum, Volunteering Commitment on Career Decision Level of Social Welfare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of Self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3, pp. 293-314,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3.23.3.293>
- [8]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 [9]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15 Statistics Year Book of Social Workers.
- [10] J. Y. Chang, H. C. Shin & J. Y. Lee, The Effect of Commitment toward College Major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mong College 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0, no. 4, pp. 415-435, 2007. DOI: <https://doi.org/10.24230/ksiop.20.4.200711.415>
- [11] J. B. Han, S. M. Yang & B. Y. Oh, The Effect of Professor Satisfaction on Career Certainty Majoring: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Practicum Outcome.

-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5, no. 2, pp. 183-205, 2014.
DOI: <https://doi.org/10.16881/jss.2014.04.25.2.183>
- [12] Y. K. Kim. The effects of the learning experiences at the social work field placement on social work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 Social welfare Research, 50. pp. 1975-0129, 2016.
- [13] J. S. Kang, Effect of Supervis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Work Practicum on th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12, pp. 212-222,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12.212>
- [14] I. H. Yun, Majoring in social work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research on the effect of Careers Stress; Focusing on the latent mean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6, pp. 308-314,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6.308>
- [15] H. J. Jin & H. K. Yoon, The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Confidence in and Satisfaction with Major on choosing Major-related Career. Journal of Sport Leisure Studies, vol. 37, no. 1, pp. 45-52, 2009.
- [16]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17] G. P. Cho & E. Y. Jang, The influence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Major Commitment, Procrastination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4, pp. 211-228, 2010.
- [18] Y. J. Bae & S. J. Shim,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areer Barriers Perceives b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Career Decision Level: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spir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9, no. 4, pp. 67-91, 2013.
- [19] S. M. Han, Influencing Factors on the Career Decision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9, no. 4, pp. 257-276, 2015.
DOI: <https://doi.org/10.18398/kjlgas.2015.29.4.257>
- [20] Hackett, G. & Betz, N. E.,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8, no. 5, pp. 399-410. 1981.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28.5.399>
- [21] D. W. Eom, The Status and Causes of Early Separation of College Graduate Newcomers: Focusing on the HRM Perspectiv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11, no. 2, pp. 237-260, 2008.
- [22] S. H. Nam, Major Commitment and Work Value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9, no. 1, pp. 223-242, 2005.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2001.tb00961.x>
- [23] Jackson. S. A. & Marsh, H. 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8. pp. 17-35, 1996.
DOI: <https://doi.org/10.1123/jsep.18.1.17>
- [24] Crites, J. O., Career counseling: model,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acGraw-hill. 1981.
- [25] Wallace, G. R. & Walker, S. P., Self concept, Vocational interests and Choice of academic major in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Journal, 23. pp. 361-367, 1990.
- [26] Allen, N. J. & Meyer, J. P., The Measurement of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pp. 1-18, 1990.
DOI: <https://doi.org/10.1111/j.2044-8325.1990.tb00506.x>
- [27] Morrow, P. C., Concept Redundancy in Organizational Research: The Case of Work Commit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pp. 486-500, 1983.
DOI: <https://doi.org/10.2307/257837>
- [28] Mowday, R. T., Porter, L. W. & Steers, R. M., Employee-Organization Linkages.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 [29]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30] Mundell. C. E., The Role of Perceived Skill, Perceived Challenge, and Flow in the Experi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강 종 수 (Jong-Soo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산업복지학과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1998년 3월 ~ 2008년 2월 : 노무법인 정평 대표공인노무사
- 2008년 2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법